

# “은행업 경쟁력 부족”... 제3은행 추가 탄생 신호탄?

(인터넷은행 등)

### 금융위 은행업 경쟁도 평가

이달 말 인터넷銀 신규인가안 발표 ‘다소 집중된 시장’-‘경쟁시장’ 경계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11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 (보조적 경쟁도 평가지표)

구분	은행수	시장구조	비용효율성	경쟁환경	소비자평가
현재	중립	중립	부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전망	중립	다소 부정적	부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자료=금융위원회]

위원회를 설치해 각 업권별 주기적 평가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은행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으며,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뉜다.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

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돼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인 46.7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먼저 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NH농협금융 스포츠단 납회식에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소속 스포츠 선수들에게 격려말을 하고 있다.

## 김광수 회장, 스포츠단 납회식서 선수 격려 (NH농협금융)

“선수들의 땀방울은 농협인의 자랑”

NH농협금융은 지난달 30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8 농협금융 스포츠단 납회식(納會式)’을 열고 소속 정구, 테니스, 골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정구 및 테니스팀(NH농협은행)과 프로골프단(NH투자증권)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는 올해 동안 NH농협금융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한 해 동안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농협에 든든한 힘이 되고 농협인의 자랑”이라며 “선수 한분 한분이 농협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은 1959년 정구팀을, 1974년 테니스팀을 각각 창단하고, 비인기 스포츠종목 육성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소속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여자프로골프선수단 또한 국내외에서 선전하며 NH농협금융을 알리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림 선수는 LPGA 통산 3회 우승을 차지해 해외까지 농협의 위상을 전하고 있으며, 이승현 선수와 박민지 선수는 올해 K-LPGA A 에스오일(S-OIL) 챔피언십대회와 A DT캡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각각 우승했다.

[안상미 기자]

## 신한銀, 국내 은행 최초 日서 신용대출

모바일 가입·심사 ‘에스 셀렉트’ 독자적 신용평가 모형 기반 적용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신용대출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일본에서 독자적인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한 모바일 신용대출인 ‘에스 셀렉트(S-Select)’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스 셀렉트론은 일본 현지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연소득, 타행 대출정보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SBJ은행이 현지 고객의 특성에 맞춰 독자 개발한 개인신용평가모델인 ‘스코어 탭(Score Tab)’을 통해 심사하고, 고객은 모바일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심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고객이 납부하는



서울 신한금융그룹 사옥.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에서 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모바일 소비자금융사 아쿠라쿠(Akulaku),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Zalo), 전자지갑 모모(MoMo), 캄보디아 GMS 자동차대출 등 주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베트남 모바일 통합 플랫폼 솔(SOL)에 이어 이번에 일본에서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의 에스 셀렉트론을 출시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BJ은행은 올해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2’의 신용등급을 획득했고, 일본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JCR로부터도 ‘A’ 등급을 평가 받는 등 일본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안상미 기자]

보증회사 보증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3분기 은행 부실채권비율 1% 아래로 떨어져

0.10%p 하락한 0.96%p 인터넷은행 부실비율 올라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1%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비율은 상승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6%로 전분기 말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부실은 감소한 반면 부실채권 정상화 규모는 늘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7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 6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6조 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9.9%를 차지하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1조 6000억원, 2000억원이다.

3분기 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1.9%로 전분기 말 대비 9.2%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40%로 전분기 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조원·%·%p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증감 (c-a)	분기 (c-b)
	12월	9월	12월	9월(a)	12월	6월(b)	9월(c)			
부실채권 계	30.0	29.1	24.6	20.5	21.1	19.4	17.8		▲2.7	▲1.6
기업여신 <sup>1)</sup>	27.9	27.0	22.8	18.7	19.4	17.6	16.0		▲2.7	▲1.6
가계여신	1.9	1.9	1.7	1.6	1.6	1.6	1.6		0.0	0.0
신용카드	0.1	0.2	0.2	0.2	0.2	0.2	0.2		0.0	0.0
총여신	1,644.3	1,700.1	1,732.9	1,774.0	1,775.9	1,821.7	1,852.2		78.2	30.5
부실채권 비율 <sup>2)</sup>	1.80	1.71	1.42	1.15	1.19	1.06	0.96		▲0.19	▲0.10
대손충당금적립률 <sup>3)</sup>	112.0	123.9	82.7	90.9	93.7	102.7	111.9		21.0	9.2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고정이하여신/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자료=금융감독원]

기업여신이 2.02%로 0.44%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여신은 전분기 말과 비슷한 1.04%를 유지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18%로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타 신용대출은 0.36%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34%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부

실채권비율이 0.49%, 0.92%로 전분기보다 각각 0.06%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분기보다 0.07% 상승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0.46%, 0.12%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개선추세를 지속했다”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생명 “70대도 치매보험 가입 OK”

NH농협생명은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백세시대NH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무배당)’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초기증상인 경도치매 진단 확정시 200만원, 중증도치매 600만원, 중증치매는 1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단계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경도치매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중증치매 진단 확정을 받으면 8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중증치매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매월 120만원씩 생애최초 건강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약도 차별화했다. 총 4가지 특약 중 안심케어 특약은 치매환자의 부양자(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부모)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을 10년 확정 지급한다. 또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 파킨슨병보장



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약 25% 저렴하다.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40세 남자는 월 5만9500원, 40세 여자는 6만7400원이다.

[김희주 기자 hj89@]